

포항, 아·태 AI센터 유치 공식화… 국제연구·협력 거점 ‘도약’

국제 연구기관장 간담회

아태이론물리센터 등 국제 연구 기반 포스텍·막스플랑크 공동협력 강화 전력자립률 200% 등 인프라 강점 산업·실증 생태계 기반 유치 추진

포항시는 APEC AI 이니셔티브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AI 센터(Asia-Pacific AI Center) 유치를 공식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7일 주요 연구기관장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사사키 미사오 아태이론물리센터 소장, 박재훈 막스플랑크 연구소장, 박수진 포스텍 연구처장, 유환조 인공지능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해 공동 협력과 지원 의지를 확인했다.

아시아·태평양 AI 센터는 회원국 간 국제협력은 물론 기술 표준화, 상호운용성, AI 안전성·윤리, 지속적 R&D 협력 등을 통해 정책목표 달성, 민간투자 촉진, 회원국 간 협력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7일 주요 연구기관 기관장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어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유치방안을 논의했다.

포항시는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와 막스플랑크 한국·포스텍 연구소 등 국제 연구 허브를 성공적으로 유치·운영해온 도시다. 아태이론물리센터는 1996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설립된 국내 유일 국제이론물리센터로, 19개 회원국과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300여 명의 젊은 과학자 연구를 지원해오며 국제협력을 활발히 이어왔다. 막스플랑크연구소는 2011년 포항에 설립된 국제공동연구 거점으로, 미래 첨단 기초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며 국내 연구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포항이 국제 기초과학·AI 연구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한 이유는 포스텍을 중심으로 한 우수한 기초과학 연구 역량과 포항 방사광가속기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프라가 집적돼 있어 국제 연구기관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 방사광가속기, 나노융합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국가 핵심 연구시설과 포스텍·한동대의 연구 인력이 한곳에 모여 있어 인공지능 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포항은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이자 수소·바이오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융합·실증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전국 1위 수준인 200% 이상의 전력 자립률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은 AI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AI 센터의 최적 입지 조건으로 꼽힌다. 산업 기반과 에너지 인프라, 실증 가능한 산업 현장과 전문 연구기관 등이 조성돼 있다는 점은 포항이 AI 센터 후보지로 주목받는 핵심 요인이다. 포항시는 앞으로 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이어 추진위원회 구성, 타당성 용역 등 단계별 로드맵을 신속히 추진해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아시아·태평양 AI 센터가 유치되면 포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정책과 연구 협력 중심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AI 기반 과학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진근 기자 jingo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전남도-전남교육청

학교 무상급식 분담비율 확정

전남도는 전남교육청과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을 지자체 40%, 교육청 60%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다.

전남도·전남교육청·전남도의회·학교급식 관계자 등 8명으로 구성된 공동 TF는 6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어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 친환경 농산물 공급 방식, 공공급식통합플랫폼 보급 확대 등 효율적 급식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r6313@

하동군-한국남부발전

화력발전소 폐쇄 공동 대응

하동군은 지난 17일 하승철 하동군수와 김준동 한국남부발전(주) 사장이 하동군청에서 만나 하동화력발전소 폐쇄에 대비한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결정되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겪을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하동군의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에 위한 노력 ▲하동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상실 분석 및 대응책 모색 ▲무탄소·신재생 에너지 등 대체전원 발굴 및 신규유치 등이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무주군

오광석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무주군의회 오광석 의장이 지난 14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 제27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오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제9대 무주군 의회 의원으로 재직해오며 ‘무주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등 군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무주군민을 비롯한 전북도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송전선로 반대 결의안’을 제안하는 등 군민 생활의 질 향상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섰다.

/무주(전북)=정훈 기자 taiji1819@

경북, 프리미엄 딸기 말레이시아 수출

프리미엄 품종 앞세워 동남아 공략 수출단지 육성·판촉 강화 성장세 ↑

경북도는 2025년 하반기 첫 출하된 경북 딸기가 우수한 당도와 향, 품질을 앞세워 글로벌 프리미엄 딸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고 밝혔다.

남상주농협은 지난 17일 금일 품종 딸기 약 1,650달러 상당을 말레이시아로 선적하며 올해 경북 딸기 수출의 포문을 열었다. 남상주농협은 금일과 아리향 등 프리미엄 품종을 집중 육성하고 고품질 생산·선별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홍콩 등 동남아 주요 소비국을 중심으로 판로를 넓혀가고 있다.

경북도는 딸기를 ‘신선농산물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포항시 딸기연합회, 남상주농협 수출딸기공선회, 고령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이 참



남상주농협 딸기 수확 모습.

여하는 딸기생산수출전문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생산시설과 기자재 지원, 판촉·마케팅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이어왔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경북 딸기 수출액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 32만9천 달러에서 2024년 77만8천 달러로 136.4% 증가했으며, 2025년 10월 기준 119만5천 달러로 상승세가 더욱 가속되고 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부산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 전략 논의

전담 TF 합동 회의 개최

부산시는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대한 시의 추진 전략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8일 오전 10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 주재로 ‘공공기관 이전추진단 전담 조직(TF)’ 관계부서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의 활동을 점검하고 최근 정부 및 관계 부처의 추진 동향과 타 시도의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기반으로 시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시의 1차 이전 기능군인 금융, 해양, 영화·영상 분야를 중심으로 2차 이전 유치 대상 기관을 검토하고, 부산의 산업 경쟁력 및 미래 성장

분야를 고려해 추가로 발굴해야 할 기관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관계부서는 이번 전담 조직(TF) 회의를 위해 직접 중앙부처와 대상 기관을 방문해 동향을 파악하는 등 발로 뛰는 노력을 병행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부산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 기관 유치 필요성 및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 진행 상황과 내용을 공유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이달 초 유치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부산연구원에 의뢰했다. 앞서 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 미래혁신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이전추진단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무안, 고구마가 라떼로 왔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할리스서 첫 선

전남 무안군은 무안군융복합센터에서 생산된 군고구마페이스트가 활용된 고구마라떼 신제품이 11월 19일 전국 할리스 커피 매장에서 동시 출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올해 초 무안군융복합센터에서 생산한 군고구마페이스트 10톤을 경남 김해시의 식품기업 신광식품에 납품하면서 무안군·착한농부·신광식품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이를 기반으로 고구마라떼 신제품을 개발해 이번에 정식 출시해 할리스 커피에서 전국 소비자에게 선보이게

됐다. 또한, 이번 협력을 계기로 올해 말까지 1차로 35톤의 고구마를 가공해 군고구마페이스트를 생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산·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무안산 고구마가 전국 프랜차이즈 음료 원료로 자리잡으며, 지역 농산물이 전국 프랜차이즈 음료로 확산되는 새로운 성공사례로 거듭나, 앞으로도 지역 농가와 기업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무안군은 융복합센터 건립으로 지역 농산물의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한 가공식품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

/전남(무안)=양수영 기자

포항, 철강산단 완충저류시설 준공

오염수 차단·비상대응 체계 구축

포항시는 추진해 온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최근 준공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형산강 유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산업단지 내 환경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착공한 것으로, 총 558억 원(국비 383억 원, 도비 49억 원, 시비 126억 원)이 투입됐다. 완충저류시설은 2,000㎡ 규모의 저류조와 56,800㎡ 규모의 비점오염저감시설, 9.5km 차집관로, 펌프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이 시설은 산업단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오염수를 우선적으로 받아 외부 유출을 막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초기대응력을 높여 하천 오염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준공으로 예기치 못한 수질오염 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형산강 수질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포항시는 준공에 맞춰 포항시의회, 포항남부소방서,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경북동부환경기술인협회 등 관계 기관과 환경안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수질오염사고, 화학물질 유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포항(경북)=김진근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사 ESG 전략 세미나 개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오는 26일 부산 그랜드조선 호텔에서 ‘해운사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운업계의 ESG 경영 기반 강화와 국제 규제 변화 대응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대학교 등 관계 기관 및 해운기업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ESG 인증서 수여식 ▲전문가 강연 ▲해운사 ESG 진단사업 소개 등으로 꾸려진다. /부산=이도식 기자